한일 프로배구 남녀 최강팀의 대결인 '2010 한일 V리그 톱매치'가 오는 25일 서울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일보와 광주시배구협회 공동주관으로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렸던 2009 한일V리그 톱매치.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일 배구 최강 가리자"

■25일 서울서 한·일 V리그 톱매치

男 삼성화재-파나소닉, 女 KT&G-도레이 단판 대결

이번 시즌 프로배구를 평정한 남자부 삼성화재와 여자부 KT&G가 '2010 한일 V리그 톱매치'에서 일본 최강팀과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남자부 3연패를 달성한 삼성화재는 25일 오후 2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일본프로배구 남자부 우승팀 파나소닉 팬더스와 단판 승부를 펼친다.

여자부 우승팀 KT&G도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여자부 우승팀 도레이 애로우즈와 맞붙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톱매치는 지난해까지는 한·일 프로배구 1·2위팀이 두 경기를 치러 성적순으로 순위를 가렸지만, 올해부터는 한·일 우승팀끼리 단판 승부로 최강자를 가린다.

남녀부 1위 1만 달러(1100만여원), 2위 5000 달러(550만여원), 최우수선수(MVP) 1000 달러(110만여원) 등 두둑한 상금도 걸려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처음으로 내준 남자부 챔피언 자리를 되찾겠다는 목표로 경기에 나선다.

한국은 2006년과 2007년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이 연속으로 톱매치 우승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삼성화재가 도레이의 빠른 공격에 고전하다 1-3으로 져 우승컵을 내줬다. 현대캐피탈은 2패로 주저앉았다. 올해도 객관적인 전력비교에서는 삼성화재가 파나소닉에 다소 열세인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화재는 올 시즌 공격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캐나다산 폭격기' 가빈 슈미트(24)가 22일 고향으로 돌아가 전력이 크게 약화한 상태다.

30대 주축 선수들이 챔피언결정전에서 7차전까지 치르는 강행군을 벌인 터라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다.

반면 파나소닉은 브라질 용병 타바레스(27)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경기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삼성은 특유의 조직력과 그물망 수비를 앞세워 3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아 오겠다는 각오다.

여자부 챔피언 KT&G는 챔프전 최우수선수(MVP) 마텔라이네 몬타뇨(27·콜롬비아)가 톱매치에도 출전할 계획이라 사정이 조금 낫다.

KT&G와 맞붙는 도레이는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하며 MVP로 뽑힌 사오리 기무라(24)를 주포로 내세운다.

지난해 흥국생명에 이어 한국이 여자부 2연패에 성공하려면 몬타뇨가 사오리와 화력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14좌 완등' 도전 나선 오은선 대장

여성최초로 8000m급 14좌에 도전하는 오은선 대장이 현지시각으로 22일 오전 7시 14좌의 마지막인 안나푸르나(8091m) 1차 도전을 위해 베이스캠프를 출발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은선 대장이 캠프 2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심판 매수' 관련자 중징계

축구협 상벌위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가 경기에서 이기려고 상습적으로 심판을 매수한 전 고려대 축구부 감독 김모씨를 비롯해 돈을 받고 승부를 유리하게 판정한 심판들에게도 제명 등 중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22일 "어제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과 김 모 경기분과위원을 비롯해 이모·윤모 심판을 협회 상벌규정에 따라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고려대 축구팀 감독 김씨는 '경기를 잘 봐달라'며 심판들에게 20만~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사건에 연루된 심판 1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축구협회는 50만~100만원의 돈을 받은 심판 5명에게는 무기한 자격정지를, 50만원 이하의 돈을 챙긴 심판 3명에게는 5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심판 매수 행각을 도운 고교 축구부 감독 두 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6개월과 엄중 경고의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현대카드 아이스쇼 입장권 판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메달리스트들이 참가하는 '현대카드 슈퍼매치 X-메달리스트 온 아이스'(6월 5~6일·오후 3시30분·잠실실내체육관) 입장권 판매가 22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입장권은 현대카드 프리비아(privia.hyundaicard.com)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판매되며 가격은 플로어 R석이 13만원, R석이 11만원이다. 또 S석과 자유석은 각각 8만원과 3만원이다. 현대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1인당 4매까지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레슬링 김효섭 55kg급 우승

남자 레슬링 경량급 기대주 김효섭(삼성생명)이 양정모 올림픽 제패기념 제35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55kg급 정상에 올랐다.

김효섭은 22일 전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4일째 남자 일반부 자유형 55kg급 결승에서 김용업(조폐공사)을 2-0으로 꺾었다. /연합뉴스

문현호 대학씨름 최강 우뚝

문현호(동아대)가 제24회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대학부에서 우승했다.

문현호는 22일 경남 남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대학부 장사급(105kg 이상) 결승전에서 서경진(울산대)을 2-1로 물리쳤다.

역사급(105kg 이하)에서는 박병훈(영남대), 용사급(95kg 이하)에서는 박영운(동아대)이 각각 정상에 올랐다. 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서는 영남대가 경기대를 접전 끝에 4-3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플레이어스·AT&T 내셔널 출전"

타이거 우즈, 홈피 통해 밝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다음 달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7월 AT&T 내셔널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자신의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2일(이하 한국시각) 밝혔다.

이미 29일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퀘일할로 챔피언십에 출전할 뜻을 밝힌 우즈는 바로 다음 주에 이어지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2주 연속 대회에 나선다.

이로써 우즈의 출전이 확정된 대회는 퀘일할로 챔피언십·플레이어스 챔피언십·6월 US오픈과 AT&T 내셔널까지 4개로 늘었다.

우즈는 지난해 AT&T 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퀘일할로 대회에서는 4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8위, US오픈 공동 6위의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

'2조원 가치' 맨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팀은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2일 인터넷판에 "맨유가 18억3500만달러(2조400여억원)의 가치를 평가받아 2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13억2300만달러(1조4700여억원)를 앞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맨유는 조사가 시작된 2004년부터 계속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가치를 평가한 이 조사에서 상위 20개 구단의 평균 가치는 지난해 조사의 6억9100만달러(7680여억원)에서 6억3200만달러(7020여억원)로 낮아졌다. /연합뉴스